

[월간] 2022년 1월 1일(토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3年 第 559 號

신년사

##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새로운 변화에 100만 족친들도 함께 동참합시다



권해옥 회장

존경하옵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겨울을 맞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기(權紀) 1093년이 되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며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벌써 2년째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시키는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예방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이에 대종회에서는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다 보니 충무제는 광사고유(闕祀告由)로 간소하게 봉행할 수밖에 없었고, 정기총회와 상임위원회 등 대소 간에 회의도 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추향제 때는 정부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30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종회에서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공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로부터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4월 착공하여 10월 22일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로써 권웅렬 고문이 밭이하여 추진된 능동성역화 사업은 2019년 시조 추향제 봉행 시 권웅렬 고문이 기증한 기금으로 평창공과 학림 공사비를 건립하였고, 2020년 춘향제 때는 권오록 고문이 기증한 기금으로 시조 묘소 표지석을 새롭게 세우고 2021년에는 미진한 진입로 입구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넷째는 충장공 권율장군 표준 영정 제작을 고양시에서 발주하여 권해옥 회장, 권영익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권영범 충장



였습니다.

둘째, 시조 태사공 묘소가 안동시 문화유산 제1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서야 1천년이 넘는 안동권문의 성지인 시조 태사공 묘소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애쓴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의 국장과 권주연 상임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1974년 12월 창간한 안동권씨 종보는 창간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넷째, 1993년 2월호부터 212호까지 보관 중이었는데 고 권오선 고문이 창간호부터 소장하고 있던 종보와 부산종친회에서 1989년 3월호 제165호를 기증함으로써 안동권문의 역사적 자료이자 자금심인 안동권씨 종보 전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충장공 권율장군 표준 영정 제작을 고양시에서 발주하여 권해옥 회장, 권영익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권영범 충장

공 종종 회장 및 고양시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권오창 화백이 영정 제작에 착수하여 이미 초본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고양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표준 영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심의위원들의 심의도 열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대종회에서는 고양시와 권오창 화백과 상호 협력하여 권율장군 영정이 국가표준영정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동권씨 종보를 창간한 지 올해로 48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성씨도 매월 일간신문 크기만 하게 다양한 기사를 보도하는 종보는 없습니다. 안동권문이 유일합니다. 종보는 이제 5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자금심이자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보를 널리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는 안동권문 100만 족친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고 권태강 고문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권행완 편집국장을 다급

하게 집으로 불러 대종회에 종보발전기금 100만원을 기증하셨습니다. 고 권태강 고문님께서 생사를 넘나드는 마지막 순간에 종보발전기금을 헌성하신 것은 종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라는 고문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고 권태강 고문님의 유지(遺志)를 받아들이기 기증하신 종보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올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고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종회에서는 족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안동권문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승조정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회장과 지역종친회 및 전국청장년회 등과 함께 100만 족친이 더 돈독하고, 더 도약하는 안동권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 종설 |

### 백만 족친 화합하여 우리 권문 전진하자

권갑현 편집위원장

종친회를 정의하자면, '공동의 조상을 높이고 중히 여겨 예를 갖추며, 족친 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친회의 요건은 첫째로 종친이 후천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씨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둘째로 종친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종친 간의 화목은 종종 구성에 있어서 결코 빼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孟子)도 "천시(天時)보다는 지리(地利)가 낫고, 지리보다는 인화(人和)가 낫다"고 하였습니다.

사전(辭典)에 의하면 '인화'는 여러 사람이 화합(和合)하는 것이며, '화합'은 상하화합(上和下合)으로서 위아래가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능동(陵洞) 향사를 절향(闕享)한 적도 있고, 대종회의 여러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권문의 최대 화합 한마당인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도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올해에도 행사 개최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사정은 각 지역 종친회 및 문중 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친척 길흉사에도 제대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중이 화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친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시대

에 그나마 대종회 종보(宗報)가 매월 빠짐없이 발행되어 대종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 종친회 및 문중 그리고 종친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문(權門)의 종시(宗是)에서 두 번째가 애족정신(愛族精神) 고취(鼓吹)입니다. 애족은 목족(睦族)으로서 족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족친이 화목하게 되면 그나마지 사시인 '승조이념(崇祖理念) 화립(華立)'과 '후학계도(後學啓導) 기여(寄與)' 등을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자(孔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하여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도리(道理)에 맞지 않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문중 운영자의 업무 수행이 도리에 맞지 않고 공명정대(公明正大) 하지 않다면 종친이 문중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중의 화합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문중의 화합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위에서 가끔 종중 일에 사심(私心)을 가지고 임하여 종중의 불화(不和)는 물론 심지어는 법적 손사(訟事)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임인년 흑호(黑虎) 새해는, 《서경》 〈고묘모(阜陶謨)〉의 "공경함을 함께 하고 공손함을 함께하여 마음을 화합하게 하라[동인협공,화총재(同寅協恭,和衷裁)]"는 말처럼 종친이 다 함께 종중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감히 삼가 기대해 봅니다.

### 12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 〈종보 발전 기금〉

권태강 고문 : 1,000,000

#### 부회장

권영택 상임위원장(안동) : 1,000,000

권성용 상임위원장(부산) : 1,000,000

권기홍(문경) : 1,000,000

권인탑(안동) : 1,000,000

#### 이사

권영록(합천) : 300,000

권오극(안동) : 300,000

권오영(안동) : 300,000

#### 종무 위원

권종호(포항) : 200,000

총 : 6,1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외 임직원 일동